

군산부설초, 신입생 입학식... 행복한 첫걸음 응원

군산 | 입력 2025.03.04 15:55

김기현 sisando7@naver.com

       가 +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4일 팔마누리관에서 60명(남30, 여30)의 신입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입학식은 식전 행사로 군산부설초 푸른소리 중창단의 아름다운 공연에 이어 입학허가서 낭독과 1학년 담임교사 소개가 이어졌다.

또한 김신철 교장은 인사말과 함께 신입생 및 학부모께 '강건너 봄이 오듯'(한국가곡 임금수 곡)의 축하 노래를 선물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장 축사와 6학년 재학생 대표의 환영사를 통해 군산부설초 새가족이 된 신입생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 가슴에 학교 명찰을 직접 달아주며 학교생활의 행복한 첫걸음을 힘차게 응원했다.

김신철 교장은 "오늘 입학한 학생들의 앞날에 푸른 꿈과 희망이 활짝 열리는 큰 보람이 있길 바란다"며 "모든 학생이 성공하고 행복한 명품 군산부설교육을 위해 교육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